토온저널
www.toyonet.co.kr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5면)

송파구의회 송파문화예술관광도시연구회 수원 현장답사 및 간담회 실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문화예술관광도시연구회'(회장 김성호)는 지난 18일(수) 경기도 수원시 수원문화재단과 수원화성 일대에서 현장답사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답사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관광도시 송파 미래 성장전략 및 통합 정책연구」의 하나로 마련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축제 · 관광콘텐츠를 연계하고 있는 수원의 사례를 살펴보고, 송파구 문화 · 예술 · 관광 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자리다.

이날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수원문화재단을 방문해 곽도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단의 문화 · 관광 통합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은 ▲축제 ·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연계 방안 ▲한옥호텔의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 ▲상인회 조직 구성 등 상권 운영의 어려움 ▲축제 기간 과도한 요금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하며 송파의 현안과 연결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회 회원인 손병화 의장은 재단의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물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를 마친 의원들은 화성행궁과 장안문 일대 관광코스를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운영 현장을 직접 살폈다.

김성호 회장은 "수원은 문화유산과 축제, 관광을 하나로 엮어 도시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늘 확인한 운영체계와 현장 사례를 연구에 충실히 반영해, 송파의 자원을 서로 연결하고 지역경제로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답사에는 김성호 회장과 이원우 부회장, 손병화 의장을 비롯해 박인섭, 전정, 이강무, 박순옥, 지정수, 유미현, 김서윤, 박지효, 강정선, 김언주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